

A gentle hike up bible mountains – Sermon Notes

Title: “Carmel”

Scripture: 1 Kings 18:20-24, 38-40

Date preached: May 25th 2025

Scripture: 1 Kings 18:20-24, 38-40

20 So Ahab sent for all the children of Israel, and gathered the prophets together on Mount Carmel. 21 And Elijah came to all the people, and said, “How long will you falter between two opinions?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follow him.” But the people answered him not a word. 22 Then Elijah said to the people, “I alone am left a prophet of the LORD; but Baal’s prophets *are* four hundred and fifty men. 23 Therefore let them give us two bulls; and let them choose one bull for themselves, cut it in pieces, and lay *it* on the wood, but put no fire *under it*; and I will prepare the other bull, and lay *it* on the wood, but put no fire *under it*. 24 Then you call on the name of your gods, and I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God who answers by fire, He is God.”

So all the people answered and said, “It is well spoken.”

38 Then the fire of the LORD fell and consumed the burnt sacrifice, and the wood and the stones and the dust, and it licked up the water that *was* in the trench. 39 Now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fell on their faces; and they said, “Th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40 And Elijah said to them, “Seize the prophets of Baal! Do not let one of them escape!” So they seized them; and Elijah brought them down to the Brook Kishon and executed them there.

20. 아합이 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길멜 산으로 모으라 21.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일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2.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일의 선지자는 사백오십 명이로다 23.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찢어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불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불이지 않고 24.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아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38. 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핏은지라 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일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가손 시내로 □□□ 거서 죽이니라

Review

Today we are going to be looking at Mount Carmel and the dramatic confrontation that took place on that mountain. But before we delve into that let's briefly review last week's hike.

Last Sunday we took a slow meander up Mount Tabor. This pleasingly rounded mountain is found in the Jezreel Valley in northern Israel. It rises to a very modest 588 metres above sea level but given its location on flat plains it gives the appearance of being taller. It is a notable landmark that would have been well known to the Lord Jesus. The mountain is mentioned on a number of occasions throughout the bible.

It is noted as being an important boundary marker separating the tribes of Issachar, Naphtali and Zebulun (Joshua 19). It was the mountain upon which Gideon's brothers were killed by the

Midianite kings Zebah and Zalmunna (Judges 8:18–21). The mountain was also a place where the Israelites rejected Yahweh and worshipped pagan deities (Hosea 5:1). Mount Tabor also features on a number of occasions in a literary or symbolic sense. It is used to express notions of God's majesty and creative power. But arguably it is best known for being the place from which judge Deborah and Barak launched an attack on the Canaanite army led by Sisera.

This was the story we looked at last week. God as you will recall had allowed the Israelites to become oppressed by the Canaanite king Jabin. He was ably supported by his military commander Sisera. For 20 years they oppressed God's people due in the main to their military superiority. They possessed 900 iron chariots. When the people cried out to God for help he heard their cries. On this occasion He raised up the only female judge; Deborah to lead the people. She commanded Barak to take a force of 10,000 men to Mount Tabor. They were to wait on the mountain for Sisera to attack. God would then give them success over the Canaanites. Despite this divine assurance Barak wavered. He said that he would only go if Deborah accompanied him. She agreed to go, but warned him that the glory of the victory would not go to him but to a woman.

When Sisera heard about Barak and his 10,000 strong army waiting on Mount Tabor he mustered his forces and went out to battle. This included his entire fleet of 900 iron chariots. As they approached the Kishon River Deborah gave the order and the Israelites charged down from the mountain. God gave His people the victory as promised. It seems likely that a flash flood left the ground unsuitable for chariot warfare. The Canaanites were routed and Sisera ended the day with a rather painful headache!

This decisive defeat weakened King Jabin and in time he was overthrown and Jewish Independence was restored. God as he repeatedly did throughout the Book of Judges raised up a temporary saviour for His people.

Today we turn our attention to Mount Carmel.

오늘은 갈멜산과 그 산에서 벌어졌던 극적인 대결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주의 등반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는 다보산을 천천히 구불구불 올라갔습니다. 이 아름다운 둥근 산은 아시리엘 북부 이스라엘 계곡에 있습니다. 해발 588 미터로 완만하게 솟아 있지만, 평야에 우치해 있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산은 주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을 중요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산은 성경 전체에 걸쳐 여러 번 언급됩니다.

다보 산은 잇사갈 □□□, 스불론 지파를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로 기록됩니다(여호수아 19 장). 기드온의 형제들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에게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사 8:18-21). 이 산은 아시리엘 백성이 여호와의 배척하고 이교 신들을 숭배했던 곳이었습니다(호세아 5:1). 다보 산은 문학적 또는 상징적 의미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창조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사시리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를 공격한 곳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아빈이 아시리엘 백성들을 억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빈은 그의 군사령관 사시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 년 동안 그들은 우세한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 900 대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였고,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세워 백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보 산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사시리가 공격할 때까지 산 위에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실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주저했습니다. 그는 드보라가 동행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보라는 동의했지만,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여인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시리는 바락과 만 명의 정예 군대가 다보 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철

병거 900 대 전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손 강에 다다르자 드보리가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강이 갑자기 범람하여 땅이 병거 전투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패배하여 도주했고, 사사리는 그날 장막 밑쪽에 머리에 박혀 죽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패배로 아빈 왕의 세력이 약해지고, 얼마 후에 그는 진멸되었고 유대인들은 독립을 도왔습니다. □□□□□□ 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당신 백성들을 위해 일사적인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갈멜산으로 시선을 돌려 보겠습니다.

Let's begin by locating Mount Carmel on a map. Mount Carmel is a significant geographical landmark in Israel. As you can see on the map it is located near the Mediterranean Sea in north western Israel. It has been a site of religious and historical importance throughout biblical history. Actually when we speak of Mount Carmel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we are talking about a mountain ridge rather than a single mountain peak. In terms of size we are talking about a ridge that extends for approximately 24 kilometres. The highest peak in the range rises to 546 meters above sea level. Whilst this does not seem like a very high peak is still affords awe-inspiring views of the surrounding area. The ridge begins on the Mediterranean coast at the Bay of Acre near the city of Haifa. From there the range runs south-east down to the plain of Dothan.

The name Carmel is derived from the root word *kerem*. This word means “vineyard,” “orchard,” or “garden.” This is an appropriate name given the fertile beauty of its slopes. In the Hebrew Bible the mountain is known as *Hak Karem*, meaning “the garden or vineyard.” The whole region is associated with lushness and abundance. Almost the entire range of Carmel is covered with abundant rich soil. This means that the hillsides are covered with thickets of evergreens, pine tree, prickly oak, myrtle, lentisk, carob, and olive. This makes it the perfect place to go for a hike or just enjoy nature.

Today Mount Carmel is located within Israel's largest national park (21,000 acres). It is home to many wild creatures. If you are lucky you might spot mammals like jackals, foxes, Roe deer and even wild boars which roam the park. If birds are more your thing you might get to see kestrels, owls, griffon vultures and a wide array of migratory birds. Reptiles, such as geckos and snakes, also thrive in this environment.

If you are a fan of archaeology you would also find the park fascinating. It has around 250 sites of archaeological interest. These range from Iron Age remains (the Israelite period 1200 – 587 BC) to the bunkers and trenches dug by the British army who feared a German invasion in 1942. So there is plenty to see whatever interest you have.

먼저 지도에서 갈멜산의 위치를 찾아 보겠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리적 랜드마크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북서부 지중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 역사 전반에 걸쳐 종교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갈멜산은 단 하나의 산봉우리가 아니라 산맥을 말합니다. □□□□□□ □ 24km 에 걸쳐 뻗어 있는 □□□□□□□□. 이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546m 입니다. 그다지 높은 봉우리는 아니지만, 주변 지역에서 경외로운 외관을 제공합니다. 이 산줄기는 하이파 근처 이크레 만의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곳에서 산맥은 남동쪽으로 도단 평야까지 이어집니다.

갈멜이라는 이름은 어근 '*kerem*'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포도원", "과수원" 또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 □□의 경사면의 비옥한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적절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산은 "정원 또는 포도원"을 뜻하는 *Hak Karem*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는 풍부함과 풍요로움으로 유명합니다. 갈멜 산맥의 대부분의 땅은 비옥한 토양으로 덮여 있고, 언덕은 상록수, 소나무, 가시참나무, 도금양, 렌티스크, 캐롭, 올리브 나무로 뒤덮여 있

습니다. 하이킹을 하거나 자연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오늘날 갈멜 산은 이스라엘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21,000 에이커) □□□□□ □□□□□. 이곳에는 수많은 야생 동물 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자칼, 여우, 노루, 심지어 공원을 돌아다니는 멧돼지와 같은 포유류를 볼 수도 있 습니다. □□□□□□□ □□□□□, 올빼미, 독수리, 다양한 철새를 볼 수 있습니다. 도마뱀붙이와 뱀과 같은 파충류도 번성합니다.

고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약 250 곳에 달하는 고고학적 유적지가 있습니다. 철기 시대 유적(기원전 1200 년-기원전 587 년)부터 1942 년 독일의 침공을 우려하여 영국군이 파 놓은 벙커와 참 호까지, 다양한 유적지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든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Mount Carmel in biblical history

The mountain is mentioned on 24 separate occasions in the Old Testament in 11 different books. It is never mentioned in the New Testament. Mount Carmel has been revered since ancient times. In fact, we have Egyptian records dating back to 1600 BC that refer to it as a “holy mountain.” Since ancient times it was regarded as a special, sacred place that naturally attracted idol worship. We will consider this topic in more depth later.

Mount Carmel is often associated with beauty and fertility. In the figurative language of Scripture it appears as a symbol of beauty, fruitfulness and majesty (Jer 46:18). The prophet Isaiah speaks of the glory of Carmel, using it as a metaphor for the splendour and abundance that will come with God's salvation.

**It shall blossom abundantly and rejoice,
Even with joy and singing.
The glory of Lebanon shall be given to it,
The excellence of Carmel and Sharon.
They sha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excellency of our God.
(Isaiah 35:2)**

The earliest mention of the mountain is in Joshua chapter 12. The mountain is listed here as being the domain of the king of Jokneam. His was one of many kingdoms conquered by Joshua and God's people. It was also the mountain upon which king Saul went to set up a monument to celebrate his victory over the Amalekites (1 Sam 15:12).

But by far the most notable event which took place upon this mountain was the awesome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phet Elijah and the prophets or priests of Baal. An epic showdown between good and evil. This will be the subject of our sermon today.

In post biblical times Mount Carmel was also considered to be sacred to the early Christians. Individual hermits settled there as early as the 6th century. The Carmelites, a Roman Catholic monastic order founded in 1150 built a monastery on the traditional site of Elijah's miracle.

But were going back now to the time of the prophet Elijah. Let me take a few moments to appropriately set the scene.

성경 역사 □ 갈멜 □

갈멜 산은 구약성경 11 권에 걸쳐 24 번이나 언급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갈멜 산은 고대부터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원전 1600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 기록에는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고대부터 이 산은 특별하고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멜 산은 종종 아름다움 그리고 다산과 연관됩니다. 성경의 비유적인 표현에서 갈멜 산은 아름다움, 풍요로움, 그리고 위엄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여러미야46:18). 예언자 이사야는 갈멜 산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올 찬란함과 풍요로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아스달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코다 (이사야35:2)**

갈멜 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여호수아 12 장에 나오는데, 욱스암 왕의 영토로 언급됩니다. 그의 왕국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한 여러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이말렉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려 했던 산이기도 합니다(사무엘상 15:12).

하지만 이 산에서 일어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선지자 엘리야와 비알의 제사장들 사이에 벌어진 경이로운 대결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장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시대 이후, 갈멜산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6 세기 초부터 개별 은둔자들이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1150 년에 설립된 로마 가톨릭 수도회인 카르멜회는 엘리야의 기적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자 엘리야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시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Today's account is taken from 1st Kings. 1st and 2nd Kings in the Hebrew Bible were combined into one book. The Septuagint (Greek) translation of the Hebrew text, dating from about 250 BC was the first to divide Kings into two books. The books of the kings are aptly titled. This is because they give us the historical accounts of the 40 kings who followed after King David. We are remember speaking of the time following King Solomon in which the nation was divided into two. Israel had 20 kings and Judah had 19 kings and one queen (Athaliah).

The historical period that the books cover equals approximately 413 years. The book of 1st Kings begins with king Solomon and ends with king Ahaziah (the son of Ahab). In our study today we are going to pick up Israel's story in chapter 18. At this point in Israel's history Ahab the son of Omri is on the throne. He is the 7th king in the sequence. He would reign for 22 years from his capital Samaria. The bible is not reticent about telling us about the character and nature of this man. He was not a good man or king. But don't take my word for it here is what the bible says. In verse 30 of chapter 16 we read;

Now Ahab the son of Omri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more than all who were before him. (1 Kgs 16:30)

Let me put that into some perspective. To say he is the worst of any that came before him is some claim. It wasn't as if most of the preceding kings had been good or even okay. None of the kings that came before were good and righteous men. But Ahab was even worse than them. So right from the onset of his reign Ahab chooses to reject God and follow his own evil course. As an aside his father Omri was also a wicked man. So, as the saying goes in the case of Ahab the fruit didn't fall far from the tree.

Ahab takes as his wife one of the bible's great villains; Jezebel. She was the daughter of Ethbaal, the king of the Sidonians. Did you notice the name of her father? Ethbaal (eth-baal) means "with or near Baal." That ought to have been a clue that this was not a good family to become united with. Even though the marriage union was probably a political one designed to unify these rival kingdoms Ahab still could have refused. He chose however to go ahead and marry this wicked

pagan. As a follower of the Canaanite gods she had a particular hatred for God and His people. The pair are beautifully summed up in chapter 21 of 1st Kings.

25 But there was no one like Ahab who sold himself to do wickedness in the sight of the LORD, because Jezebel his wife stirred him up. 26 And he behaved very abominably in following idols, according to all *that* the Amorites had done, whom the LORD had cast out before the children of Israel. (1 kgs 21:25-26)

The greatest sin which Ahab committed was in turning from the one true God and worshipping Baal. He was we are told “stirred up” or encouraged to do this by his wife, Jezebel. Ahab had a temple built to this Canaanite god in Samaria (1 kgs 16:32) thereby making this the “official” religion of the people.

Although the preceding monarchs had turned from Yahweh Ahab was taking things to a whole new level of apostasy.

Let me say a word here about Baal. Baal was the supreme deity worshiped in ancient Canaan and Phoenicia. Although beliefs and traditions varied from place to place generally speaking Baal was considered to be a fertility god. The belief was that he had the power to enable the earth to produce crops, and people to produce children. This meant that naturally enough he had control over the weather. He could make it rain, and equally he could make the sun shine. He was also associated with lightning bolts. There are a number of statues that show him holding bolts of lightning. Simply put Baal was the “storm god.” Keep these things in mind as we progress with the story.

So let me summarise the situation in Israel at this time.

The kingdom of Israel due to the wayward leadership of Ahab has rejected God and is living in severe apostasy. This is not a situation that God can just sit back and observe. He will send someone to highlight the issue, call for repentance and ultimately bring revival. Step onto the scene the prophet Elijah.

His appearance in scripture is both dramatic and somewhat mysterious. All we are told is that he was a Tishbite from Tish in Gilead (1 Kgs 17:1). This means we do not know about his father, or his occupation prior to being called by God. So basically we know next to nothing about this hugely significant Old Testament prophet.

Following this brief introduction, he then makes a dramatic appearance before king Ahab to give him a message from God. The message was that there would be no rain or dew for the next few years, except at God's word. Now, some might view God as being mean or cruel in doing this. Isn't this being unduly harsh on the common people who may not have followed the religion of the king. To answer this objection, we must remember that God keeps His word. This was what God had promised would be the consequence if His people forsook Him (Lev. 26:18-19; Deut. 11:16-17). After delivering this message Elijah is warned by God to go and hide. This is because Ahab, and Jezebel in particular would be seeking out faithful servants of God to execute. No one likes bad news, and the best way to stop it is to permanently silence those who speak it. Elijah hides near the brook of Cherith where he is fed by ravens.

During this time Elijah meets a widow at Zarephath. For time's sake I'll skip over their story but it's an interesting one and well worth reading.

Let's pick things up at the beginning of chapter 18. The drought has now been going on for three and a half years (Luke 4:25). It had been particularly severe in Samaria perhaps reflecting the evil leadership of Ahab and Jezebel. God commands Elijah to go back to king Ahab and tell him that He will now provide rain on the land.

Meanwhile, back in Samaria Obadiah had been placed in charge of the king's palace (house).

Obadiah was a good and godly man and had hidden God's prophets from Jezebel who was seeking them to kill. He had successfully hidden 100 prophets in caves. The exact location of these caves is not specified but any think they may well have been on Mount Carmel.

Obadiah meets Elijah out in the country and Elijah informs him of his plan to confront Ahab.

Obadiah is to go back and report this news to the king. Obadiah is fearful that if he does this then Ahab would kill him. Ahab had been looking for this “troublesome” prophet for years.

He has been a wanted man. Obadiah's fear is that he will report that he has found Elijah and then God will tell him to go somewhere else. When Ahab and his men come to arrest Elijah he won't be there and Obadiah will be for the chop! Elijah assures Obadiah that he will not hide but will indeed go and meet the king. Obadiah returns and reports the news that Elijah is back to Ahab.

When Ahab and Elijah meet it is prickly to say the least. It's fair to say that neither man liked the other. Ahab refers to Elijah as being the “troubler” of Israel. He believed that he was the one who was responsible for the drought and subsequent famine. Elijah's response is beautifully blunt and to the point. If only we had people today able to speak so directly to those in power. Let me give you the exact biblical quote.

And he answered, “I have not troubled Israel, but you and your father’s house *have*, in that you have forsaken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have followed the Baals. (1 Kgs 18:18)

Let me paraphrase what Elijah is saying. It's not me that's responsible for this. It's YOU. You turned from the one true God and all He commanded and began to worship false gods. What did you imagine would happen?

Then Elijah tells him that there is going to be a showdown.

Now I'm a big fan of Westerns. I grew up watching and loving cowboy movies. Many westerns include a showdown between two gunfighters. The good guy and the bad guy. It's the ultimate way to settle their differences and find out once and for all who will be the “top-dog.” Two men on a dusty street staring each other down. Who will be the fastest draw?

That's what we are getting here. Elijah is going to represent Yahweh in the fight. Against him will be the pagan deity Baal represented by 450 prophets of Baal, and the 400 prophets of Asherah. This event is to be witnessed by all the children of Israel. Let's turn now and see how this contest plays out.

오늘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한 권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기원전 250 년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 인역은 열왕기를 두 권으로 나눈 최초의 책임입니다. 열왕기서라는 제목은 적절한데, 이는 다윗 왕 이후 40 명의 왕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둘로 분단된 시기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20 명의 왕이 있었고, 유디아에는 19 명의 왕과 한 명의 왕비(아달라)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이 다루는 역사적 기간은 약 413 년에 해당하는데, 솔로몬 왕으로 시작하여 아하시야 왕(아합의 아들)으로 □□□□. 오늘 우리는 18 장에 기록된 아시리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역대 왕 중 일곱 번째 왕이고, 수도 사마리아에서 22 년간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이 왕의 성격과 품성에 대해 가차없이 기록하는데,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만 믿지 마십시오. 성경 열왕기상 16 장 30 절에서 기록하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그 이전의 왕들 보다 사악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주장입니다. 이전 왕들이

결코 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의 왕들 중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합은 그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합은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악한 행로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 또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속담대로 이합은 부전자전 the fruit didn't fall far from the tree 입니다.

이합은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 중의 악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시돈 왕 엣비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인 엣비알(eth-baal)은 "비알과 함께 또는 비알 근처에"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이 가문이 결혼하기에 적합한 집안이 아님을 간파해야 했습니다. 비록 이 결혼이 경쟁 상대인 왕국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지라도 이합은 여전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악한 이교도와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따르는 그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증오심을 특별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열왕기상 21 장에 훌륭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25. 예로부터 이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26.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라

이합이 지은 가장 큰 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비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다고 기록합니다. 이합은 사마리아에 가나안 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고(왕상 16:32), 그것을 백성들의 "공식"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합 이전 왕들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긴 했지만, 이합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배교를 자행했습니다.

여기서 비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알은 고대 가나안과 페니키아 지역에서 최고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비록 신앙과 관습들이 지역마다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비알은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비알이 땅에서 농작물을 생수시키며 비를 내리게 하고, 해를 비추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번개와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번개를 들고 있는 모습의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알은 "폭풍의 신 storm god"이었습니다. 이 점들을 명심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합의 악한 통치 아래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각한 배도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보내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회개를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극적이면서 비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은 그가 길르앗의 디스베 출신이었다는 것뿐입니다(왕상 17:1).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직업이 무엇이었던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선지자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 엘리야는 이합 왕 앞에 극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합 왕의 종교를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반론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을 저버리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레위기 26:18-19; 신명기 11:16-17). 이 메시지를 전한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숨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합과 특히 이세벨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잡아 처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엘리야를 숨어 지내고 까마귀들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사르벳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시간 관계상 그들의 이야기는 건너뛰겠지만, 흥미롭고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18 장 서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뭇은 3 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누가복음 4:25). 특히 사마리아에 기뭇이 극심했는데, 아마도 이합과 이세벨의 악한 지도력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합 왕에게 가서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편 □□□□□□□□□□ □□ (왕궁) 관리자였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는 100 명의 선지자를 동굴에 숨겨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동굴들의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갈멜 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다가 길을 가다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는 이합을 만날 자신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오바다는 돌아가서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한다면 이합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합은 이 "문제아" 선지자 엘리야를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수배자였습니다. 오바다는 자신이 엘리야를 찾았다고 보고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합과 그의 부하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는데 그가 거기에 없다면 오바다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숨지 않고 왕을 만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바다는 돌아와 엘리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합 왕에게 전합니다.

이합과 엘리야의 만남은 걸끄러운 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합은 엘리야를 아스라엘을 "괴롭게하는 자troubler"라고 부릅니다. 그는 엘리야가 기뭇과 기근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대단히 직설적이며 요점을 콕 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 아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왕상 18:18)

엘리야의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다. 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명하신 모든 것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는 이합에게 결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서부극의 열렬한 팬입니다. 카우보이 영화를 보고 좋아하면서 지냈습니다. 대부분의 서부극에는 두 총잡이의 결투가 포함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결투는 그들의 불화를 해결하고 누가 "최고" 인지 단번에 알아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먼저 날리는 거리에서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봅니다. 누가 더 빨리 총을 뽑을 것인가?

여기서도 바로 이런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결투에서 여호와의 대표입니다. 그와 맞설 상대는 바알의 선지자 450 명과 아세리의 선지자 400 명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아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결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 So Ahab sent for all the children of Israel, and gathered the prophets together on Mount Carmel.

So the scene is being set for this epic confrontation. A big fight requires a big fight atmosphere. This is only generated by a large and enthusiastic crowd. Elijah had called upon Ahab to gather the people together. They would be the spectators at this showdown. Ahab could have ignored Elijah. Kings do not have to heed the words of their subjects. But here Ahab complies and the "nation" gathers. Ahab no doubt believed in the power of Baal and his prophets.

The setting for this showdown would be Mount Carmel. Why this particular mountain you may ask. Wouldn't any high place have sufficed? Well, the mountain is situated in neutral land between Israel (Yahweh's territory) and Phoenicia (Baal's territory). That may be the reason it was chosen.

However, I think there is a far more pertinent reason. The Phoenicians regarded Mount Carmel as a special sacred place. It was where they believed Baal resided. It was his home. The area was prone to sudden violent lightning storms. Remember me saying before that Baal was linked with storms and lightening. So these pagan people thought such storms were manifestations of their god. If there was a storm on the mountain it meant that Baal must be home. So in effect Elijah is ceding home field advantage.

That's not something to take lightly. In sports contests today when a team plays at home they statistically do better.

A 2015 report by Nathan Pinger discovered that in the NBA the home team wins 62.7% of their games, in the NHL, 59% of games are won by home teams while in American football the home side wins 57.6% of their games. Simply put you win more often at home. (www.chicagobooth.edu/review/home-field-advantage-facts-and-fiction)

This fact didn't faze Elijah. He had complete trust in God. Home or away it made no difference. In effective he is saying that his trust in God is so great that even with every disadvantage he will still win the contest.

Let's read on and see what Elijah does next.

20. 아합이 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모으라

이 장대한 대결의 배경 무대가 설정됩니다. 야 합니다. 엘리아는 아합에게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전의 관중이 될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아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합은 그 명령을 따랐고 온 "모"가 모였습니다. 아합은 분명 바알과 그 선지자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 결전의 무대는 갈멜 산입니다. 왜 이 특정한 산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시죠. 아무 곳이나 높은 곳이면 관창지 않았을까요? 갈멜 산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토)과 페니키아(바알의 영토). 아마도 그것이 이유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갈멜 산을 특별한 성지로 여겼습니다. 바알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믿었으니, 그의 흠 그라운드였습니다. 그 지역은 격렬한 번개 폭풍이 갑작스럽게 자주 발생했습니다. 제가 바알이 폭풍과 번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교도들은 그러한 폭풍이 자신들의 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아는 사실상 흠 구장의 잇점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스포츠 경기에서 팀이 홈에서 경기를 할 때 통계적으로 더 나은 성적을 거둡니다.

Nathan Pinger 의 2015 년 보고서에 따르면 홈팀이 NBA 에서는 경기의 62.7%, NHL 에서는 59%, 미식축구에서는 57.6%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홈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www.chicagobooth.edu/review/home-field-advantage-facts-and-fiction)

하지만 엘리아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흠이든 원정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대한 믿음 때문에 온갖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엘리아가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1 And Elijah came to all the people, and said, "How long will you falter between two opinions?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follow him." But the people answered him not a word.

What a wonderful verse this is. You've got to admire Elijah's direct precision. There's no preamble or beating around the bush. He's addressing all those people that are happy to sit on the fence. It seems that here on Mount Carmel that description encompassed all present. They all seemed happy to have one foot in Yahweh's camp, and the other in Baal's. They saw no problem between flitting or hovering between the two. So Elijah confronts them with the ultimate question. Who is it you serve? It's time to make a choice. If you think Yahweh is God then follow Him. If you favour Baal then give up this pretence of following Yahweh and devote yourself to Baal.

I suspect that some of the Israelites were much like some people today. They wanted to serve two masters, God and Baal. They didn't really want to have to make a choice between the two. The same applies today. People want to serve God and some other idol. This idol may take many forms. The obvious idols that we crave after today include material things (possessions), work, success, money, fame and sex. People may want to seek after God, but not at the expense of chasing their cherished idol. Just like those ancient Israelites on Mount Carmel they don't really want to have to make a choice.

But if you really want to follow and please the Lord you must make that choice. Each and every day you must make the choice to follow God and Him alone. This is because God is a jealous God. He will not countenance any competition. Nothing must come between us and Him. He will not permit a rival because no rival exists. There are not multiple gods in existence. There is only one and He demands our undiluted allegiance.

Elijah must have hoped his words would provoke a response. But these people were stubborn and hard-hearted. There was no repentance or even any outrage at his words.

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엘리야의 단도직입적인 회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경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는 이 표현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 그들은 모두 한 발은 여호와의 편에, 다른 한 발은 바알의 편에 걸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편 .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을 따르라. 바알이 좋다면 여호와를 따르는 척하지 말고 바알에게 헌신하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매우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 합니다. 이 우상은 여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갈망하는 우상 중에는 물질(소유물), 일 성공, 돈, 명예, 섹스가 포함됩니다. , 자기들에게 소중한 우상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멜산의 이스라엘인들처럼 그들은 선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 .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그분 . 그분과 경쟁할 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분은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의 말에 대해 회개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2 Then Elijah said to the people, "I alone am left a prophet of the LORD; but Baal's prophets are four hundred and fifty men. 23 Therefore let them give us two bulls; and let them choose one bull for themselves, cut it in pieces, and lay it on the wood, but put no fire under it; and I will prepare the other bull, and lay it on the wood, but put no fire under it. 24 Then you call on the name of your gods, and I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God who answers by

fire, He is God.”

So all the people answered and said, “It is well spoken.”

What a sad statement for Elijah to make. That he alone was the only true prophet left.

Now we know that this wasn't literally the case. There were the 100 prophets kept hidden by Obadiah for example. But at this time on the top of Mount Carmel Elijah stood alone. He might also mean that he alone was the only prophet doing what God wanted at this moment. Ranged against him were 450 prophets of Baal. You may remember that 400 prophets of Asherah had also been told to come. However it seems that the prophets of this female goddess had not shown up. Despite this the odds were very much against Elijah.

Elijah then outlines how this showdown will play out. Both groups will build an altar and then place a cut up bull on top. They will then call upon their respective deity to light the wood and burn the offering. This was to be a supernatural test. It was to be a test of the respective deities and not the prophets who served them.

Now, this would not be much of a challenge for Baal. He remember was the god of storms. He would easily be able to send down a lightning bolt and start the fire. So the test is simple enough. Whichever God answers with fire is to be pronounced the winner and is to be acknowledged as the one true God.

The people are unanimous in their agreement that this is a fair test.

22.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홀로 바알의 선지자는 명이로다 23.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떼서 위에 놓고 불은 불이지 말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위에 놓고 불은 불이지 않고 24.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라

오직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참된 선지자는 엘리아의 선언은 얼마나 슬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 선언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다가 숨겨둔 100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갈멜 산에는 엘리아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또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유일한 선지자는 자기 자신 뿐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맞선 바알 선지자들은 450 명이었습니다. 아세라의 선지자 400 명도 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 여신의 선지자들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이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설명합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각을 뜯 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장작에 불을 붙여 제물을 태워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폭풍의 신이므로, 번개를 내려 불을 붙이는 일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신이 승리하고 유일신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공정한 시험이라고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For time's sake allow me briefly summarise how the test transpires. I recommend you read the full account in 1st Kings chapter 18 verses 25-38.

The prophets of Baal get to go first. They prepare the bull and lay it on the altar. After this they implore Baal from morning to noon crying out for him to hear their cries and act. But all they received for their efforts was silence. Their god did not answer.

At noon Elijah who had no doubt been watching all of this with great interest began to mock them and their “god.” He wonders aloud whether Baal is meditating, busy, off on a journey, sleeping or relieving himself. The prophets of Baal no doubt irritated and frustrated intensify their efforts. This included cutting themselves until their blood gushed out. They continued on with this nonsense

endorsed and encouraged would be eliminated (see Deuteronomy 13:5, 13:13-18, 17:2-5, and 18:9-22). It's a very serious business spreading doctrinal error. Anyone who shares lies or falsehoods that take people away from God is a dangerous person. You can be sure that God takes it seriously and so should we.

We shall leave Elijah standing on the top of Mount Carmel. This was far from the end of his experiences. You will have to read the rest of first kings and into the 2nd chapter of 2nd Kings to know his full story. He was a remarkable servant whom God used in a variety of ways. But arguably he remains best known for the miracle God worked through him on Mount Carmel. It's hard for us to imagine today as we look at that peaceful mountain that it was once the venue for such a historic showdown. Our mighty God who created and sustains the universe revealed Himself in a dramatic way on that mountain top.

40.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비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자라 엘리아가 그들을 가손 사내로 궤궤 거서 죽이랴

이 장대한 대결은 사실 엘리아와 비알의 선지자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비알과 여호와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엘리아는 백성들에게 악한 선지자들을 붙잡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대한 새로운 충성심을 보이며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거짓 선지자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를지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들이 조장한 부패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3:5, 13:13-18, 17:2-5, 18:9-22 참조).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궤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말이나 허위를 퍼뜨리는 사람은 누구든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시므로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아가 갈멜 산 정상에서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전부 알려면 열왕기상 나머지 부분과 열왕기하 2 장까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 용하신 놀라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갈멜 산에서 그를 통해 행하신 기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 평화로운 산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한때 그러한 역사적인 결전의 장소였음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산 꼭대기에서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 셧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one lessons drawn from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All religions are not the same

As I'm sure you are aware Pope Francis died on April 21 of this year. Personally, I'll not mourn his passing. The church over which he ruled is wicked and corrupt. It teaches a false gospel and has been complicit in covering up numerous scandals over the centuries. Even among Roman Catholics Pope Francis was seen as being controversial. On many important social issues he was considered to be wishy-washy and liberal. He was weak when it came to homosexuality (Who am I to judge), marriage and the sexual abuse scandals that continue to rock the church. He was also far from decisive when it came to asserting that there is just one way to God. Let me read what he said on this issue.

“All religions are paths to God. I will use an analogy, they are like different languages that express the divine.”

Yes, you heard me right. The leader of the Catholic Church is basically admitting that all religions are basically the same. All, according to him offer a valid way to get to God.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즉, 다른 모든 길은 틀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유일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 밀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기분 ☐☐☐☐ ☐☐☐☐ , 자옥에서 보낼 영생에 비하면 그 불쾌감은 지극히 사소할 뿐입니다.